



P2P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 최근 해외에서는 P2P금융상품의 하나로 P2P보험이 등장하고 있음.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각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임. P2P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비용상 이점을 가짐. 우리나라의 경우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 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P2P(peer-to-peer)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 P2P대출은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임.
-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각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함.
 - 손실보전에 사용하기 위한 일부 적립금은 위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시 고갈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 P2P보험은 2010년 독일의 Friendsurance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 영국의 Guevara, 2015년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가 영업을 시작하였음.

■ P2P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P2P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60여 개의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음.

- Friendsurance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공동 적립계좌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각출금의 최대 40%까지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함.
 - Friendsurance는 보험의 중개기능과 공동계좌 관리기능만을 수행함.
- Friendsurance는 주택보험(home contents), 개인배상책임보험(private liability), 법률비용보험(legal expenses) 등의 소규모 위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Friendsurance는 60여 개의 보험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 대상 보험종목도 확대할 예정임.

■ P2P보험 업체들은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각출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특히, 위험을 공유하는 그룹이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로 이루어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음.
- Friendsurance는 재물보험 고객의 80%가 평균적으로 각출금의 33%를 환급받았고 손해율도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낮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P2P보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적립금으로 담보가 가능한 소규모 보험사고에 적합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함.

■ 우리나라는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P2P보험 수요가 존재할 것이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 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재물보험은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어 일부 담보만을 P2P형태로 판매할 경우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을 그룹화해서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우리나라 P2P금융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P2P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임.
- 또한 P2P보험 업체가 P2P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함. [kiri](#)